

“경전선 순천 외곽 우회·지중화해야”

허석 순천시장 노선 변경 요구 “전철화 사업 계획대로 진행면 도심 3등분... 교통·소음 피해”



허석 순천시장이 24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광주송정~순천 경전선의 도심 외곽 우회 또는 지중화를 촉구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도시를 관통하는 경전선 고속전철 노선에 대해 외곽 우회노선 건설과 일부 구간의 철도 지중화를 요구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4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광주송정~순천 경전선을 도심 외곽으로 우회하거나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과 순천-목포 간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광주 등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돼 순천은 명실상부 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도 운행횟수 증가, 고압전철 구조물 설치 등으로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면 순천시내 평면교차로 10곳에서 하루에 열차가 46차례 지나다니며 30분에 1대 이상의 고속열차가 도시를 관통하게 된다. 기존 6차례 지나던 열차가 30분마다 지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철도 인접지역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열차 통과를 위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또 7m 높이의 고압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도심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

이다. 허 시장은 대안으로 철도 노선을 도심 외곽으로 우회하는 것과 일부 도심 구간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교역에서 순천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서면을 지나는 전라선에 연결하고, 도심구간 노선을 지중화하면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철도노선은 정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허 시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며 “경전선의 시내 구간을 지중화하거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전

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선 가운데 1930년 건설 이후 개량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122km인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1조7703억원이 소요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5시간 이상 걸렸던 광주~부산 이동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순천시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경제성을 이유로 순천시 구간은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올해 15억 투입 스마트공장 9개소 보급

6월 30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고흥군은 중소·중견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군은 올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9개소(기초 8, 고도화 1) 구축을 목표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스마트공장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흥군은 기본적인 요건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에 놓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자동화장비, 센서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준은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목표로 6개월 동안 진행되고, 고도화 수준은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을 목표로 9개월 동안 진행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14억원의 예산을 투입, 8개 업체(기초 5, 고도화 3)의 스마트화 역량 강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피아골·문수골 등 오지 수돗물 공급

2025년까지 243억원 투입

구례군은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토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토지면 문수, 송정, 외곡, 내서, 내동리 10개 마을을 620여 세대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피아골 계곡과 문수골 계곡 주변의 오지 마을이다.

해당 지역은 급수원이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개인 관정을 이용, 가뭄철과 혹한기 동결에 따른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해당 지역을 반영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실시계획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5년간 2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실시계획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본 사업을 착수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연장은 56.9km로, 가압펌프장 21개소와 배수지 3개소도 설치된다.

구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3%이며, 오는 2035년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순



구례군은 오는 2025년까지 243억원을 투입해 피아골·문수골 등 산골 오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구례군 제공)

호 구례군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 봉화산 업동저수지 두꺼비 대규모 산란·서식

도심지역 건강한 생태계 상징

로드킬 예방 등 보전 대책 시급

순천시 봉화산 일대 업동저수지에서 대규모 두꺼비 산란·서식이 발견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업동저수지에는 봉화산에 서식하는 두꺼비들이 산란하기 위해 모여 들고 있다.

두꺼비 서식지는 도심지역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견된 두꺼비는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순천의 자연생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봉화산 일대에 서식하는 두꺼비는 매년 2월께 산란을 위해 업동저수지로 내려와 새끼 두꺼비가 5월께 다시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산란과 회귀를 위해 이동 시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서식지와 산란지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 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할 계획



순천시 봉화산 업동저수지 서식 두꺼비. (순천시 제공)

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태계 지표종인 두꺼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생태학습장 활용과 도심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토양개량제 13만9000포 공동 살포

곡성군은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해 13만 9000포를 공동 살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농협 담당자, 면사무소 담당자, 이장 등 15명이 참석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구산길, 석회길, 폐하청 등 전체 공급량에 대해 공동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은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역 유지 보전을 위해 3년에 1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역은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으로 총 9844필지(총 면적 1542ha)에 13만 9821포를 살포할 계획이다.

살포는 지역농협이 이달까지 살포 대행자를 선

정해 시행하게 된다. 살포 대행자에게는 20kg들이 포당 800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뿌려줘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보니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되지 않고 쌓여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양개량제 보급은 물론 공동살포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동살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